

“중국 전기차 부상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략적 도전”

“China’s EV Rise and the Strategic Challenge for Japan’s Automotive Industry”

» **저자** : Aya ADACHI

» **일자** : 2026년 4월 29일

» **출처** :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https://www.ifri.org/en/memos/chinas-ev-rise-and-strategic-challenge-japans-automotive-industry>



- ❖ 이 글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가 일본 자동차 산업에 제기하는 이중적 도전을 분석한다. 저자는 전기차 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산업 권력의 이동이며, 생산 규모, 가격 경쟁력, 배터리 기술, 공급망 통합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 ❖ 우선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과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배터리 생산 역량, 핵심 광물 공급망 통합을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을 급속히 확장하였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했으며, 전기차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보급을 확대하고,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 ❖ 이에 비해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서 구조적 경쟁 격차에 직면하였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중심의 수출 구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기술 선택의 경로 의존성이 결과적으로 전기차 전환에서의 대응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 ❖ 이와 동시에 전기차 전환은 공급망의 지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와 핵심 광물로 이동하면서, 희토류 정제,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전략적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통제 및 미국·유럽의 관세 대응은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경제안보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 비축,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과의 협력, 인도 등 대체 시장 진출을 통해 단기적 경쟁 압력을 완화하려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 ❖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대체는 비용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 중심 공급망 구조를 단기간 내 탈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전기차 전환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전환임을 시사한다.
- ❖ 마지막으로 이 글은 유럽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유럽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성숙한 자동차 산업 구조와 중국 의존적 공급망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무역 방어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산업정책, 공급망 다변화, 기술혁신, 그리고 일본·한국과 같은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협력이 결합된 선택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전기차 전환 시대의 경쟁이 생산 능력뿐 아니라 공급망 통제와 기술 생태계 구축을 둘러싼 복합적 경쟁임을 강조한다.